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 함께 전진하며

캐런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한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간 후, 캐런은 론락 벨리의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기독교 여성 직업학교 (Christian Women's Jobs Corps, CWJC) 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성장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이앤 세퍼드와 셸리 멀린스를 만난 후, 캐런은 여성 직업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해서 캐런은 여성을 위한 그룹홈의 거주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막 나왔거나 가정폭력에서 탈출한 여성, 혹은 약물중독에서 회복중인 여성들이 이곳을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벨몬트 침례교회 교인인 캐런은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학교로 이끌고 있습니다.



쿠버즈 코브, 멜로즈, 벨몬트, 반잭, 로자린드 힐 침례교회의 공동사역인 여성 직업훈련은 성경공부와 생활 훈련, 컴퓨터 교실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함께 일합니다. 다이앤은 말합니다: "캐런은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교회도 없었지만, 이제 그녀에겐 가정과 직업, 교회가 있으며 다른 여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룹홈의 창립자인 도로시는 말합니다: "2014년에 캐런은 지낼 곳이 필요했는데, 지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캐런 없이는 여성을 위한 그룹홈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사역과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버마 피난민을 위한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과 일은 자유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회와 일자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많은 가족들에게 이것은 특권입니다.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 집니다. 버마 교회 지도자이며 버지니아 여선교회 이사인 로이 지 마립은 해리슨버그에서 벌이는 사역을 통해 많은 버마 피난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이 지는 피난민인 양 라 훈과 그의 네 자녀들과 손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고통과 역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목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태국에 있는 난민캠프에 16년간 거주한 후 2018년 8월 23일, 양 라 훈은 미국 피난민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주했을 때, 영어를 할 수도 없고 난민캠프에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는 직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로이 지 전도사가 양의 초기 정착과정을 도왔고, 결국 양은 직업도 찾고 결국 가족을 미국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로이 지 전도사의 교회는 양의 가족을 후원해 주었고, 이제 이들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양의 가족들은 계속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많은 피난민 가족들이 해리슨버그에서 그랬던 것처럼, 양과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을 찾고 있는 양 라 훈과 그 가족, 또 다른 많은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AlmaHunt19



를 후원하세요.
AlmaHunt.org
를 후원하세요

1976년 이래로 버마 피난민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WNUV는 2019년 9월 8-15일 동안 버마 피난민을 위한 사역을 후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원금은 WNUV에 기부되어 버마 피난민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aHunt.org를 방문하십시오. 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aHunt.org를 방문하십시오.

버마 피난민을 위한 사역



고전 12:25-27

Alma Hunt
Offering for Virginia Missions

강조기간
2019년 9월 8-15일
목표액수
\$1,167,500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인디언 사역지 스탠딩 락: 함께 관계를 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우리는 다코타 주의 굳건한 반석 부족 인디언과 신뢰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사랑하는 친절하고 잘 듣는 귀, 그리고 격려의 말을 통한 것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는 이를 함께 이룹니다.

선교 지역리더인 다이안 콜먼은 이번 여름 사우스 다코타로 가는 열번째 여정을 마쳤습니다. 다이안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첫 해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면서도 꺼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벌린 팔로 안아주고 미소 지으며 눈물로 반겨줍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줄 성경을 달라고 붙박하고, 어른들은 자신의 새 성경에 내 이름과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써달라고 합니다. 한 여인은 내가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이 이 관계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매해 리틀 이글에 사는 많은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지역 풀타임 사역자인 버포드 "부츠" 마쉬 목사는 버지니아 여성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당신들은 내 부족민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신들의 계속된 기도와 나눔과 방문으로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는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을 더 깊이 제자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디언 스탠딩 락 부족들을 위해 사랑과 복음을 위해 헌신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동부 해안에 있는 공동체를 위한 연합

올해 초,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원 봉사자들이 케이프 찰스 섬으로 건너가 버지니아 동부 해안에 있는 노스햄프턴 카운티에 대한 비전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나누는 것은 체사피크 베이 브릿지 터널 양쪽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케이프 찰스 침례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거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려는 이들의 비전과 열정의 산물입니다. 이들은 다수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스플래쉬 캠프를 비롯한 여러 사역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플래쉬 캠프는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로,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경험하도록 돕고 여름동안 저렴한 차일드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지역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에 초대하려는 이들의 열심은 임팩트 선교 캠프에 참여하여 버지니아 안에 있는 여러 선교공동체의 자원 봉사자들과 만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캠프와 버지니아 지방회와의 연합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수양회를 통해 장기간의 파트너십으로 자라났습니다. 파트너가 된 각 사역들은 "거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려는 처음의 비전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이 비전이 케이프 찰스 침례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들과 버지니아 지방회 전역에 퍼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나눔과 동참으로 함께하길 초청합니다.

버지니아 동부 해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이 파트너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우스릿지: 함께 하는 교회 개척

2016년 중반 내 아내 제니와 내가 프레데릭스버그에 사우스릿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전 모임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개방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동참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6명의 장년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우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몸으로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과 영적 은사들을 넘어서도록 해주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9개월이 지나 소수의 가정이 이주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에는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가지치기의 기간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9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20개의 새 가정들이 사우스릿지 교회에 참여하는 성장을 맛보도록 도우셨습니다.

한 몸이 될 때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돕고 초청하고 나누는 연합의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에게 한 몸이 되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릿지 교회의 계속된 성장과, 버지니아와 세계에 퍼진 다른 개척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 레바논에 큰 영향을 끼치다

레바논은 인구의 삼분의 일이 피난민입니다. 여기에서 한 작은 침례교회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들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레바논 교육 사회개발 단체 (LSESD) 는 레바논 교회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육성합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의 필요를 대변하며, LSESD 는 이곳에 있는 피난민들의 곤경을 돌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 서로 뭉쳐 어떻게 자기 공동체의 필요를 통합적으로 돌보는지 보여줍니다. 이 교회들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극력하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거침없이 활동합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에 걸친 재난 구호 활동은 음식과 위생 도구, 우유와 기저귀, 건강보조기, 심각한 부상 대처와 방한 용품 등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역 교회들과 기독교 기관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동역자들은 트레이닝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조직된 믿을 수 있는 도움과 재난 구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무 것도 없이 쫓겨난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레바논에서 이들을 돕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기쁨과 힘과 안전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손을 내밀어 버지니아에 있는 피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